“사각지대 존재…다나 지원 큰 도움됐어요”

소외계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나눔 캠페인 소녀에게 응원을

① 다나 나눔 현장 가다

진해구 18개 아동센터에 매달 생리대, 쌀 등 지원
관내 80명 생리대 혜택
센터장들 “스님에게 감사”
탄경스님 “창원까지 확대”

진해=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6월 14일 진해군청에서 진행된 (사)다나와 진해 지역아동센터장과의 간담회 직후 이뤄진 기념촬영 모습.

(사)다나 회장 탄경 스님의 한 주는 빠르게 지나간다. 화요일에 서울 종로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밥차 배식을 마치면, 차를 몰고 지방을 다니며 각종 지원 물품들을 수령한다. 그리고 수령물품들을 필요한 곳에 나눠준다. 다시 금요일에는 서울로 올라와서 노숙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인 ‘동네한바퀴’를 진행한다.

매달 한 번씩은 창원특례시 진해구를 찾는다. 진해 지역 아동센터에 쌀과 간식, 생리대를 나눠주기 위해서다. 6월 14일, 특별한 자리가 마련된다고 해서 탄경 스님과 함께 진해구청을 찾았다. (사)다나의 지원을 받는 진해구 18개 아동센터장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사)다나와 진해 지역 아동센터들과의 인연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장영남 경화지역아동센터장은 “센터를 운영한지 10년이 됐는데, 포도와 수박부터 떡국까지 다양한 물품을 지원해주고 있다”면서 “아이들도 다나에서 지원해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스스로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생리대 나눔 사업은 지난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으로 인해 ‘생리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다나 역시 관심을 갖게 됐다. 사회적으로는 2021년 4월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대상 선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보편 지원 사업이 없는 상황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조손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제대로 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탄경 스님이 지역아동센터에 쌀을 가져다 주고 있다.


다나가 지원한 쌀을 들고 즐거워하는 센터 아이들.


탄경 스님과 센터장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생리대의 비싼 가격은 청소년들이 구입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국가별 생리대 개당 평균 가격에 따르면 한국은 개당 331원인데 반해 미국·일본은 181원, 덴마크는 156원, 캐나다 202원으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서울시 여성청소년 중 ‘월경용품 구입을 비싸서 망설인 적 있다’는 응답이 74%에 달하기도 했다.

생리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여성청소년들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적지 않은 종교 및 민간단체들이 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단체 중 불교단체는 ‘다나’가 유일하며, 진해 지역에서도 유일한 단체다.

다나는 아동센터마다 필요한 생리대 수량을 조사해 매달 관내 대상 여성 청소년 약 80여 명에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다. 수량도 넉넉히 잡아 100명은 사용할 수 있는 양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지원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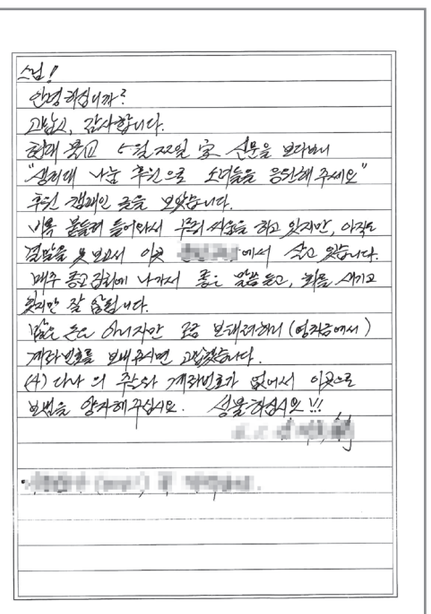
김다혜 샘바위 지역아동센터장은 “시설 이용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생리대 구입이 막상 쉽지 않다는 고충이 많았다”며 “사람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생리대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각지대는 어디나 있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다나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생리대가 기초수급 가정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미혜 꿈나무지역아동센터장은 “우리 센터의 경우 중학교 여학생들이 많다. 아이마다 월경의 양이 다른데, 다나는 생리대를 대·중·소로 나눠 세심하게 지원해준다. 이에 감사함을 느끼는 학생이 많다”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지원해주시니 다나를 모르는 아이들이 없다. 스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탄경 스님은 “우리 단체명 다나는 사실 한국어가 아니다. ‘보시’를 산스크리트어로 ‘다나(dāna)’라고 한다. 보시는 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며 “우리 단체는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계획은 창원으로 나눔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경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당장 군승 선후배 도반들을 통해 받았던 생리대 지원이 어렵게 됐지만, 항상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어왔다. 앞으로도 열심히 나누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탄경 스님은 지역 아동센터를 돌며 직접 쌀과 국수, 간식을 전했다. 이른 더위에 맺힌 스님의 땀방울은 누구보다 값졌다.


스님!
안녕하세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연히 본지 6월 25일 날 신문을 보다보니
“생리대 나눔 후원으로 소녀들을 응원해주세요”
후원 캠페인 글을 보았습니다.
이름 붙들려 들어와서 무죄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결말을 못 보고 이곳 [redacted]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주 종교 집회에 나가서 좋은 말씀 듣고, 화를 새기고 있지만 잘 안됩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영치금에서 조금 보태서 보내려고 합니다. 계좌번호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적지만 영치금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사)다나의 캠페인 체결 기사(5월 22일자)를 보고 한 재소자가 편지를 보내와 일부를 게재한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현대불교신문 5월 22일자 신문을 보다보니 ‘생리대 나눔 후원으로 소녀들을 응원해주세요’ 후원 캠페인을 봤습니다.

비록 붙들려 들어와서 무죄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결말을 못 보고 이곳 교도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주 종교 집회에 나가서 좋은 말씀 듣고, 화를 새기고 있지만 잘 안됩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영치금에서 조금 보태서 보내려고 합니다. 계좌번호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창간 30주년 현대불교·(사)다나 공동 후원 캠페인

소외계층청소년 여성위생용품 나눔사업

소녀에게 응원을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6001-04-342006 (사단법인 다나)

후원문의 | 010-5347-4178 (대표 탄경 스님)

